



파이팅 외치는 U-20 축구대표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서 준우승을 차지한 U-20 축구대표팀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계2위 정정용호 U-20 건각들 금의환향

이른 아침부터 어린 태극전사들 보기위해 인천공항 북적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으로 한국 축구사를 새롭게 쓴 U-20 축구대표팀이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금의환향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축구대표팀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월요일 오전임에도 입국장은 세계 2위에 오른 어린 태극전사들을 보기 위한 팬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례적인 축구대표팀 입국 생중계를 위한 방송 장비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U-20 축구대표팀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예상보다 늦은 오전 8시쯤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주장 황태현(안산 그리너스)은 "폴란드에 있을 때는 이 정도일 줄 몰랐다. 한국에 와서 느껴보니 우리가 정말 역사적인 일을 해냈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열렬한 표정을 지었다.

정 감독은 "한국땅을 밟으니 실 감한다. 국민들이 20세 대표팀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이강인 "매순간이 좋은 추억, 행복했다"

막내로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경험한 이강인(18·발렌시아)은 "매순간이 좋은 추억이었다"고 고백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했다.

U-20 축구대표팀은 폴란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최초 FIFA 주관 대회 결승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다. 마지막 관문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에게 1-3으로 패해 트로피는 놓쳤지만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했다.

이강인은 "목표가 우승이라고 했는데 못 이뤄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전혀 없다.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경험이었다. 이 좋은 경험



과 추억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의미하는 골든볼 수상으로 이번 대회 최고의 별이 됐다.

이강인은 "다 기억에 남는다. 처음 폴란드에 도착한 것부터 오늘 마지막날까지 매 순간이 좋은 추억이었다"면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스태프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 상은 나만 받은 것 아니고 모든 팀이 받은 것"이라고 주위에 공을 돌렸다.

### LG 김현수,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간집계 선두

LG 트윈스의 주장 김현수가 KBO리그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간집계 1위에 올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발표한 2019 신한은행 마야가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선정 팬 투표 1차 중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나눔 올스타(KIA·NC·LG·키움·한화) 외야수 부문의 김현수가 23만 5085표로 득표 1위를 차지했다.

올 시즌 홈런 공동 선두를 질주 중인 드림 올스타(두산·롯데·SK·삼성·KT) 1루수 부문의 제이미 로맥(SK)이 23만 8832표를 획득, 김현수를 1253표 차로 추격했다.

나눔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에서는 LG 사이드암 신인 정우영이



22만 6610표를 얻어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전체 득표에서도 3위다.

정우영은 KBO 올스타전 역대 최초로 투수 부문 고졸 신인 베스트 선정에 도전한다. 타자 부문에서는 2009년 KIA 안치홍과 2017년 넥센(현 키움) 이정후가 고졸 신인으로 베스트12에 선정됐지만 고졸 신인 투수가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된 적은 없었다.

## 류현진, 호투 불구 시즌 10승 또 무산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시즌 10승 달성에 또 다시 실패했다.

류현진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 선발등판, 7이닝 7피안타 8탈삼진 2실점(비자책점) 호투를 펼쳤다.

류현진은 2-2로 팽팽히 맞선 8회초 로스 스트리플링에 마운드를 넘기면서 승패없이 물러났다.

지난 11일 LA 에인절스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불펜진의 난조로 승리를 날려버렸다. 이날 경기에서도 역투를 펼쳤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즌 10승 고지에 오르지 못했다. 개인 통산 50승 달성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1.36에서 1.26까지 끌어내리는데 만족해야 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공고히했다.

류현진은 1회초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다. 첫 타자 히비에르 바에즈를 3구 삼진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투수 앞 땅볼로 잡아냈다. 그러나 앤서니 리즈와 윌슨 콘트라레스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호흡을 가다듬은 류현진은 데이비드 보티를 상대로 낮은 체인지업을 던져 유격수 땅볼을 유도했다.

류현진은 2회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카터와 체인지업을 결정구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다.

류현진은 3회 1사 후 바에즈에게 3루수 방면의 내야안타를 맞았다.

시카고 컵스전 7이닝 8탈삼진 2실점(비자책점) 평균자책점, 더 낮아진 1.26...메이저 전체 1위



LA 다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이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1회 투구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이언트에게 몸쪽 커터를 던져 유격수 앞 병살타로 잡아내 위기를 넘겼다.

4회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리즈, 콘트라레스, 보티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를 모두 내야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5회 선두타자 앨버트 알모라에게 안타를 내준 후 헤이위

드를 삼진으로 잡아냈다. 이후 호세 칸타나에게 희생번트를 내줬지만, 에디슨 러셀을 삼진으로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6회 실점을 기록했다. 선두타자 바에즈를 상대로 3루 땅볼을 유도했지만, 3루수 저스틴 터너의 악송구로 주자를 내보냈다. 이후 브라이언트에게 중전

안타를 내준 후 콘트라레스에게 내야안타를 맞고 실점을 했다. 왼쪽으로 치우친 수비 시프트로 인해 병살타구가 안타로 둔갑했다. 이어 보티에게 희생플라이를 내줘 역전을 허용했다. 다행히 2점 모두 비자책점으로 기록됐다.

2-2로 맞선 7회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은 카를로스 곤잘레스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한 후 러셀을 삼진으로 처리했다. 이어 바에즈를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스탠딩 삼진으로 잡아냈다. 몸쪽 낮은 코스로 파고드는 포심패스트볼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다.

다저스는 2-2로 팽팽하게 맞선 8회부터 불펜진을 가동했다.

8회초 마운드를 이어받은 스트리플링이 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균형을 유지한 다저스는 8회말 리드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다저스는 8회말 선두타자 크리스 테일러가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맥스 먼시의 3루 땅볼로 2루를 밟아 1사 2루의 득점 찬스를 일궜다. 러셀 마틴의 좌전 안타 때 2루에 있던 테일러가 전격집주해 홈을 밟으면서 다저스는 3-2로 앞섰다.

다저스는 9회초 등판한 마무리 투수 켈리 잰슨이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그대로 3-2 승리를 거뒀다.

이번 4연전을 3승 1패로 마친 다저스는 48승째(24패)를 수확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했다. 컵스는 22승째(30승)를 당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로 밀렸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기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